

2024
고1
3월 학평

2024년 시행 고1 3월 학평 국어 문학
초록이 세상을 덮는다, 두암육가 변형 문제

이 서적은 「저작권법」에 따라 보호됩니다. 본 자료의 무단 배포, 도용 시,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.

[1~5]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.

(가)

잠깐 초록을 본 마음이 돌아가지 않는다.

초록에 붙잡힌 마음이

초록에 붙어 바람에 세차게 흔들리는 마음이

종일 떨어지지 않는다

여리고 연하지만 불길처럼 이글이글 휘어지는 초
록

땅에 박힌 심지에서 끝없이 솟구치는 초록

나무들이 온몸의 진액을 다 쏟아내는 초록

㉠ 지금 저 초록 아래에서는

얼마나 많은 잔뿌리들이 발끝에 힘주고 있을까

초록은 수많은 수직선 사이에 있다

수직선들을 조금씩 지우며 번져가고 있다

직선과 사각에 밀려 꺼졌다가는 다시 살아나고 있
다

흙이란 흙은 도로와 건물로 모조리 딱딱하게
덮인 줄 알았는데

이렇게 많은 초록이 갑자기 일어날 줄은 몰

[A] 봤다

아무렇게나 버려지고 잘리고 갇힌 것들이

자투리땅에서 이렇게 크게 세상을 덮을 줄은

몰랐다

콘크리트 갈라진 틈에서도 솟아나고 있는

저 저돌적인 고요

단단하고 건조한 것들에게 옮겨 붙고 있는

저 촉촉한 불길

- 김기택, 「초록이 세상을 덮는다」

(나)

어저 내 일이야 무슨 일 하다 하고

굳은 이 다 빠지고 검던 털이 희었네

어우와 소장불노력하고 노대에 도상비로다*

<제1수>

셋 넷 다섯 어제인 듯 열 스물 열пят 지나

서른 마흔 한 일 없이 쉰 예순 넘는단 말인가

장부의 허다 사업을 못 다 하고 늙었느냐

<제2수>

생원이 무엇인가 급제도 헛일이니

발 같고 눈 매더면 설마한들 배고프리

이제야 아무리 애달픈들 몸이 늙어 못하올쇠

<제3수>

너희는 젊었느냐 나는 이미 늙었구나

젊다 하고 믿지 마라 나도 일찍 젊었더니

젊어서 흐느적흐느적하다가 늙어지면 거짓 것이*

<제4수>

㉡ 재산인들 부디 말며 과갑인들 마다 할까

재산이 우수하고 과갑은 재천하니*

하오면 못할 이 없기는 착한 일인가 하노라

<제5수>

내 몸이 못하고서 너희더러 하라기는

내 못하여 애달프니 너희나 하여라

청년의 아니하면 늙은 후 또 내 되리

<제6수>

- 김약련, 「두암육가」

*소장불노력하고 노대에 도상비로다: 젊어서 노
력하지 않고, 늙어서 상삼과 슬픔뿐이로다.

*거짓 것이: 거짓말처럼 허망한 것이.

*재산이 우수하고 과갑은 재천하니: 재산은 운수
가 있어야 하고 과거 급제는 하늘에 달렸으니.

학평 변형 문제

1. (가)와 (나)의 표현상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
은?

- ① 특정 시어를 반복하여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
다.
- ② 선정 후경을 사용하여 시적 상황을 부각하고 있
다.
- ③ 수미상관의 방식을 통해 형태적 안정감을 주고
있다.
- ④ 명사형으로 시상을 마무리하여 시적 여운을 주
고 있다.
- ⑤ 후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대상의 속성을 나타

내고 있다.

학평 변형 문제

2. <보기>를 바탕으로 (가)와 (나)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?

<보기>

사물을 바라보거나 삶을 되돌아보며 사색하는 경험을 통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. (가)의 화자는 도시 공간에서 마주한 '초록'에 사로잡혀 초록을 들여다보며 그것이 지닌 생명력을 깨닫고, 이에 대한 감탄과 놀라움을 드러낸다. (나)의 화자는 자신의 백발을 바라보며 현재의 처지를 한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난 삶을 돌아보며 깨달은 바를 젊은이에게 전달하고 있다.

- ① (가)의 '저 촉촉한 불길'과 (나)의 '이미 늙었구나'를 통해 화자가 사색을 시작했음을 알 수 있군.
- ② (가)의 '마음이 돌아가지 않는다'는 '초록'에서 벗어나고픈 심리를, (나)의 '발 같고 눈 매더면 설마한들 배고프리'는 열심히 일했지만 넉넉지 않은 현실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군.
- ③ (가)에서는 '수직선들을 조금씩 지우며'를 통해 '초록'이 도시 공간을 변화시키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고, (나)에서는 '늙은 후 또 내 되리'를 통해 젊은이가 과오를 저지르지 않기를 바라고 있군.
- ④ (가)의 '밀려 꺼졌다가는 다시 살아나고 있'는 것에서 '초록'의 번덕스런 성질을, (나)의 '급제도 헛일'에서 출세를 위한 도전이 실패했음을 깨닫고 있군.
- ⑤ (가)의 '갑자기 일어날 줄은 몰랐다'는 '초록'의 새로운 모습에 대한 화자의 당황스러움을, (나)의 '이미 늙었구나'는 현재의 처지에 대한 화자의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군.

학평 변형 문제

3. [A]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- ①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대상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.

- ② 색채 이미지를 활용하여 애상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.
- ③ 자연물에 말을 건네는 어투를 활용하여 친근감을 드러내고 있다.
- ④ 대상에 감정을 이입하여 자연물에 대한 자신의 심정을 강조하고 있다.
- ⑤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음을 드러내고 있다.

학평 변형 문제

4. (나)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?

- ① <제1수>의 '어저 내 일이야'에 담긴 경각심은, <제2수>의 '장부의 허다 사업'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다짐으로 이어지는군.
- ② <제1수>의 '노대에 도상비로다'에 담긴 깨달음은, <제4수>의 '늙어지면 거짓 것이'로 확장되어 나타나는군.
- ③ <제2수>의 '서른 마흔 한 일 없이'에 담긴 허탈함은, <제4수>의 '젊어서 흐느적흐느적'한 것이 원인으로 작용하는군.
- ④ <제3수>의 '이제야 아무리 애달픈들'에는 늙은 몸으로 무엇인가를 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, <제6수>의 '내 못하여 애달프니'에는 착한 일을 하지 못한 화자의 안타까운 심리가 드러나는군.
- ⑤ <제5수>의 '하오면 못할 이 없기는 착한 일'은 화자의 새로운 다짐이며, <제6수>의 '너희더러 하라'에서 '너희'는 화자가 착한 일을 행하는 대상이겠군.

학평 변형 문제

5. 시상의 흐름을 고려하여 ㉠과 ㉡을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- ① ㉠에는 대상을 향한 화자의 미움이, ㉡에는 청자를 향한 화자의 고마움이 나타나 있다.
- ② ㉠에는 대상과 화자 사이의 동질감이, ㉡에는 대상에 대한 화자의 이질감이 드러나 있다.
- ③ ㉠에는 감춰진 진실에 대한 화자의 의심이, ㉡에는 화자의 현재 상황에 대한 놀람이 나타나 있다.
- ④ ㉠에는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한 화자의 상상

이, ㉠에는 삶은 자신의 의지대로 되지 않는다는 화자의 인식이 드러나 있다.

- ⑤ ㉡에는 문제의 원인에 대한 화자의 반성이, ㉢에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거부하는 화자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.

【5~10】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.

(가)

잠깐 초록을 본 마음이 돌아가지 않는다.

초록에 붙잡힌 마음이

초록에 붙어 바람에 세차게 흔들리는 마음이

종일 떨어지지 않는다

여리고 연하지만 불길처럼 이글이글 휘어지는 초

록

땅에 박힌 심지에서 끝없이 솟구치는 초록

나무들이 온몸의 진액을 다 쏟아내는 초록

지금 저 초록 아래에서는

얼마나 많은 잔뿌리들이 발끝에 힘주고 있을까

초록은 수많은 수직선 사이에 있다

수직선들을 조금씩 지우며 번져가고 있다

직선과 사각에 밀려 꺼졌다가는 다시 살아나고 있

다

흙이란 흙은 도로와 건물로 모조리 딱딱하게 덮인

줄 알았는데

이렇게 많은 초록이 갑자기 일어날 줄은 몰랐다

아무렇게나 버려지고 잘리고 갇힌 것들이

자투리땅에서 이렇게 크게 세상을 덮을 줄은 몰랐

다

콘크리트 갈라진 틈에서도 솟아나고 있는

저 ㉠ 저돌적인 고요

단단하고 건조한 것들에게 옮겨 붙고 있는

저 촉촉한 불길

- 김기택, 「초록이 세상을 덮는다」

(나)

어저 내 일이야 무슨 일 하다 하고

굳은 이 다 빠지고 검던 털이 희었네

어우와 ㉡ 소장불노력하고 노대에 도상비로다*

<제1수>

셋 넷 다섯 어제인 듯 열 스물 열пят 지나

서른 마흔 한 일 없이 쉰 예순 넘는단 말인가

장부의 허다 사업을 못 다 하고 늙었느냐

<제2수>

생원이 무엇인가 급제도 헛일이니

발 같고 논 매더면 설마한들 배고프리

이제야 아무리 애달픈들 몸이 늙어 못하올쇠

<제3수>

- [A] 너희는 젊었느냐 나는 이미 늙었구나
 젊다 하고 믿지 마라 나도 일찍 젊었더니
 젊어서 흐느적흐느적하다가 늙어지면 거짓
 것이*

<제4수>

재산인들 부디 말며 과갑인들 마다 할가

재산이 우수하고 과갑은 재천하니*

하오면 못할 이 없기는 착한 일인가 하노라

<제5수>

내 몸이 못하고서 너희더러 하라기는

내 못하여 애달프니 너희나 하여라

청년의 아니하면 늙은 후 또 내 되리

<제6수>

- 김약련, 「두암육가」

*소장불노력하고 노대에 도상비로다: 젊어서 노력하지 않고, 늙어서 상심과 슬픔뿐이로다.

*거짓 것이: 거짓말처럼 허망한 것이.

*재산이 우수하고 과갑은 재천하니: 재산은 운수가 있어야 하고 과거 급제는 하늘에 달렸으니.

6. (가)와 (나)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- ① (가)는 수미상관의 방식을 통해, (나)는 설의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.
- ② (가)는 (나)와 달리 역설적 표현을 통해 대상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부각하고 있다.
- ③ (나)는 (가)와 달리 동일한 종결 표현을 사용하여 구조적 안정감을 부여하고 있다.
- ④ (가)와 (나)는 모두 후각적 이미지를 통해 시적 상황을 구체화하고 있다.
- ⑤ (가)와 (나)는 모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여 화자의 태도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.

7. <보기>를 바탕으로 (가)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<보기>

김기택의 시 '초록이 세상을 덮는다'는 도시 공간에서 마주한 초록에 사로잡힌 화자가 초록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깨닫게 된 자연의 역동적 생명력에 대한 놀라움과 감탄이 드러난 작품이다. 초록은 여리고 부드럽지만, 불길처럼 맹렬한 기세로 건조하고 딱딱한 도시 공간을 촉촉하게 적시며 온 세상을 생명력 넘치는 공간으로 변화시키고 있다.

- ① (가)의 '잠깐 초록을 본' 것을 계기로 '초록'의 속성에 대한 깨달음에 이르는 사색이 시작되고 있다.
- ② (가)의 '초록에 붙잡힌 마음'은 '초록'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화자의 심리를 나타내고 있다.
- ③ (가)의 '수직선들을 조금씩 지우며'는 '초록'이 '직선과 사각'의 도시 공간을 덮으며 생명력 넘치는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.
- ④ (가)의 '밀려 꺼졌다가는 다시 살아나고 있'는 것에서 도시 공간에서 발견한 '초록'의 끈질긴 생명력을 깨닫고 있다.
- ⑤ (가)의 '갑자기 일어날 줄은 몰랐다'에서 '초록'의 왕성하고 역동적인 생명력을 깨닫게 된 것에 대한 놀라움이 나타난다.

8. [A]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?

- ① 의문형 어구를 활용하여 화자의 태도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.
- ② 부정 표현을 사용하여 자신의 삶을 반성하는 자세를 드러내고 있다.
- ③ 앞 구절의 일부를 다음 구절에서 반복하여 내용을 연결하며 강조하고 있다.
- ④ 대구적인 표현을 활용하여 자신의 현재 처지에 대한 탄식을 드러내고 있다.
- ⑤ 시간과 관련된 표현을 활용하여 상황이 변화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.

9. (나)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- ① <제1수>의 '어저 내 일이야'는 화자가 '소장불 노력하고 노대에 도상비'한 것을 한탄하는 것이다.
- ② <제2수>의 '서른 마흔 한 일 없이'는 지난날에 대한 화자의 반성이 담겨 있다.
- ③ <제3수>의 '이제야 아무리 애달픈들'에는 늙어버린 몸으로 아무것도 못하는 화자의 안타까운 심리가 드러나 있다.
- ④ <제4수>의 '늙어지면 거짓 것이'에는 이론 없이 늙은 화자가 느끼는 허망함이 드러나고 있다.
- ⑤ <제5수>의 '하오면 못할 이 없기는 착한 일'은 자신이 했던 일을 젊은이도 하기를 바라는 화자의 마음을 드러낸다.

10. ㉠이 사용된 표현 방법이 아닌 것은?

- ① 아아, 님은 갔지마는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.
- 한용운, '님의 침묵'
- ② 먼 후일 당신이 찾으시면 그때에 내 말이 잊었노라.
- 김소월, '먼 후일'
- ③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.
- 유치환, '깃발'
- ④ 바라보노라 온갖 것의 보이지 않는 움직임을
- 고은, '눈길'
- ⑤ 얻는다는 것은 곧 잃는 것이다.
- 김수영, '파발 가에서'

정답 및 해설

1. [정답] ①

- (가)는 ‘초록’, ‘몰랐다’, ‘저’ 등의 시어를 반복하여, (나)는 ‘내’, ‘너희’, ‘젊다’, ‘늙다’ 등의 시어를 반복하여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.
- ② (가)와 (나) 모두 선정후경의 방식을 사용하여 시적 상황을 부각하고 있지 않다.
- ③ (가)와 (나) 모두 수미상관의 방식을 통해 형태적 안정감을 주고 있지 않다.
- ④ (가)는 명사형으로 시상을 마무리하여 시적 여운을 주고 있지만, (나)는 그렇지 않다.
- ⑤ (가)와 (나) 모두 후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대상의 속성을 나타내고 있지 않다.

2. [정답] ③

- (가)의 ‘수직선들을 조금씩 지우며’를 통해 ‘초록’이 도시 공간을 덮으며 생명력 넘치는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고, (나)의 ‘늙은 후 또 내 되리’는 ‘청년’들에게 늙은 후 자신과 같은 신세가 되기 않기를 바라는 화자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.
- ① (가)의 ‘저 촉촉한 불길’은 초록에 대한 화자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고, (나)의 ‘이미 늙었구나’는 화자의 한탄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.
- ② (가)의 ‘마음이 돌아가지 않는다’는 ‘초록’에 붙잡힌 화자의 마음을, (나)의 ‘밭 갈고 논 매더면 설마 한들 배고프리’는 농사를 지었더라면 배고프지 않았을 것이라는 화자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.
- ④ (가)의 ‘밀려 꺼졌다가는 다시 살아나고 있’는 것에는 도시 공간에서 발견한 ‘초록’의 끈질긴 생명력에 대한 화자의 깨달음이 드러나고, (나)의 ‘급제도 헛일’에는 출세를 위한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화자의 생각이 드러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.
- ⑤ (가)의 ‘갑자기 일어날 줄은 몰랐다’에서 ‘초록’의 왕성하고 역동적인 생명력을 깨닫게 된 것에 대한 놀라움이, (나)의 ‘이미 늙었구나’에서 이론 것 없이 늙어버린 자신의 현재 처지에 대한 한탄이 드러나

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.

3. [정답] ⑤

- ‘갑자기 일어날 줄은 몰랐다’와 ‘세상을 덮을 줄은 몰랐다’에서 유사한 문장 구조가 반복되고 있으며, ‘초록’이 일어나거나 세상을 덮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음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.
- ① [A]에서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대상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.
- ② [A]에서 색채 이미지를 활용하여 애상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지 않다.
- ③ [A]에서 자연물에 말을 건네는 어투를 활용하여 친근감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.
- ④ [A]에서 대상에 감정을 이입하여 자연물에 대한 자신의 심정을 강조하고 있지 않다.

4. [정답] ④

- <제3수>의 ‘이제야 아무리 애달픈들’에는 넉넉하지 못한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늙어버린 몸으로 무엇인가를 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화자의 안타까운 심리가, <제6수>의 ‘내 못하여 애달프니’에는 청년에게 ‘착한 일’을 권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그 일을 실천하지 못한 것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운 심리가 드러나 있으므로 적절하다.
- ① <제1수>의 ‘어저 내 일이야’에는 경각심이 나타나지 않고, <제2수>의 ‘장부의 허다 사업’은 화자가 이루지 못한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다.
- ② <제1수>의 ‘노대에 도상비로다’는 화자의 애상감을, <제4수>의 ‘늙어지면 거짓 것이’에는 화자의 허망함이 나타나므로 적절하지 않다.
- ③ <제2수>의 ‘서른 마흔 한 일 없이’에는 지난날에 대한 화자의 반성이 나타나고, <제4수>의 ‘젊어서 흐느적흐느적’은 젊은이에게 흐느적흐느적하지 말라는 화자의 당부이므로 적절하지 않다.
- ⑤ <제5수>의 ‘하오면 못할 이 없기는 착한 일’은 <제6수>의 ‘너희더러 하라’에서 권유하는 내용이므로 적절하지 않다.

5. [정답] ④

- (가)의 화자는 나무가 초록을 쏟아내기 위해 보이지 않는 땅속에서 얼마나 많은 잔뿌리들이 발끝에 힘을 주고 있을지에 대해 상상하고 있다. 따라서 ㉠에

는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한 화자의 상상이 드러나 있다는 말은 적절하다. 그리고 (나)의 화자는 재산 축적이나 과거 급제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, 운수와 하늘 뜻에 달린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. 따라서 ㉠에는 삶은 자신의 의지대로 되지 않는다는 화자의 인식이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다.

① ㉠에는 대상을 향한 화자의 미움이 드러나지 않으며, ㉡에는 청자를 향한 화자의 고마움이 나타나지 않는다.

② ㉠에는 대상과 화자 사이의 동질감이 드러나지 않으며, ㉡에는 대상에 대한 화자의 이질감이 드러나지 않는다.

③ ㉠에는 감춰진 진실에 대한 화자의 의심이 나타나지 않으며, ㉡에는 화자의 현재 상황에 대한 놀라움이 나타나 있지 않다.

⑤ ㉠에는 문제의 원인에 대한 화자의 반성이 나타나지 않으며, ㉡에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거부하는 화자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.

6. 정답 ③

(가)는 '저돌적인 고요', '촉촉한 불길'에서 역설적 표현을 사용하여 '초록'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고, (나)에는 역설적인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적절하다.

① (가)와 (나)에는 수미상관의 방식이 사용되지 않았다.

② (가)는 '-았다' 등의 종결 표현이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, (나)에는 동일한 종결 표현이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.

④ (가), (나) 모두 후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지 않는다.

⑤ (가)와 (나)에는 시간의 흐름이 드러나지 않는다.

7. 정답 ②

(가)의 '초록에 붙잡힌 마음'에서 '초록'에 매료된 화자의 심리가 나타나므로 적절하지 않다.

① (가)의 '잠깐 초록을 본' 것을 계기로 '초록'의 속성에 대한 깨달음에 이르는 화자의 사색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.

③ (가)의 '수직선들을 조금씩 지우며'는 '초록'이 '직선과 사각'의 도시 공간을 덮으며 생명력 넘치는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

있다.

④ (가)의 '밀려 꺼졌다가는 다시 살아나고 있'는 것에서 화자는 도시 공간에서 발견한 '초록'의 끈질긴 생명력을 깨닫고 있음을 알 수 있다.

⑤ (가)의 '갑자기 일어날 줄은 몰랐다'에는 화자가 '초록'의 왕성하고 역동적인 생명력을 깨닫게 된 것에 대한 놀라움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.

8. 정답 ④

'너희는 젊었느냐 나는 이미 늙었구나'에서 대구적인 표현을 활용하고 있고, '젊어서 흐느적흐느적하다가 늙어지면 거짓 것이'에서 자신의 현재 처지에 대한 탄식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.

① [A]에서 의문형 어구를 활용하여 화자의 태도 변화를 드러내고 있지 않다.

② [A]에서 부정 표현을 사용하여 자신의 삶을 반성하는 자세를 드러내고 있지 않다.

③ [A]에서 앞 구절의 일부를 다음 구절에서 반복하여 내용을 연결하며 강조하고 있지 않다.

⑤ [A]에서 시간과 관련된 표현을 활용하여 상황이 변화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지 않다.

9. 정답 ⑤

<제5수>의 '하오면 못할 이 없기는 착한 일'은 <제6수>에서 '내 몸이 못하고서 너희더러 하라기는/내 못하여 애달프니 너희나 하여라'라는 내용을 통해 자신이 하지 못한 일을 젊은이가 하기를 바라는 화자의 마음을 드러내므로 적절하지 않다.

① <제1수>의 '어저 내 일이야'는 화자가 '소장불노력하고 노대에 도상비'한 것을 한탄하는 것이므로 적절하다.

② <제2수>의 '서른 마흔 한 일 없이'는 지난날에 대한 화자의 반성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.

③ <제3수>의 '이제야 아무리 애달픈들'에는 늙어 버린 몸으로 아무것도 못하는 화자의 안타까운 심리가 드러나 있으므로 적절하다.

④ <제4수>의 '늙어지면 거짓 것이'에는 이룬 것 없이 늙은 화자가 느끼는 허망함이 드러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.

10. 정답 ②

㉠에 사용된 표현 방법은 역설법이다. '먼 후일 당

신이 찾으시면 그때에 내 말이 잊었노라.’에는 반어법이 사용되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.

①, ③, ④, ⑤에는 역설법이 사용되었으므로 적절하다.

목민배포공서